

## ■ 2026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소설) 1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소설
- 회의일시 : 2026년 1월 23일(금), 13:00~15: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지희, 설 혼, 엄창석, 표명희, 홍명진 심의위원

본 사업은 한국 문학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동시대 문학장의 다양성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는 소설 작가의 창작 역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나 일회성 출판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작가 개인이 지닌 문학적 가능성과 향후 창작 활동의 확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국 문학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 주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작가의 문학적 성취와 미래에 이를 작품 세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원이라는 점을 기본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심의는 사전에 공지된 기준에 따라 △신청주체의 사업수행역량(5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40%), △문학 생태계 기여도(10%)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이내의 주요 창작 실적과 작품을 통해 입증된 문학적 성취, 그리고 작가로서의 지속적인 활동 여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단순한 창작 의지 표명이나 추상적 목표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갖춘 연간 활동 계획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출판, 번역, 후속 작업 등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었다고 출판사·제작사 등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 희망 수준에 머문 경우에는 점수 산정에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의는 개별 위원의 사전 검토 및 채점 이후 심의위원이 모두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판단을 도출하였습니다.

올해 소설 분야에는 총 99편이 심의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다양한 세대와 경력의 작가들이 고르게 포함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상위권에 포함된 다수의 작가들이 최근 문학장에서 수상이나 비평적 주목을 받아온 경우가 많다는 점이 함께 논의되었으며, 이에 더해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작가들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등단 이후 장기간 활동해온 작가들의 창작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대중적·상업적 성공을 거둔 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며, 또한 연령이나 경력에 따른 보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역시 아닙니다. 영상 문화의 확산과 과잉 출판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 그간의 창작 활동을 통해 축적된 작품 세계의 문학적 완성도와 서사 및 언어 차원의 성취를 중심으로 한 엄정한 평가가 심의 전반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한국 소설 창작 현장이 높은 잠재력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많은 신청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작품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사업이 앞으로도 문학의 깊이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원칙을 유지하며, 작가들에게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